하상주보

2018년 11월 11일 (나해)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제17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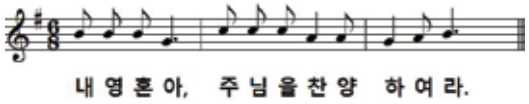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마르 12,43-44)

〈가난한 과부의 헌금〉, 프랑수아 조제프 나베作

[제1독서]····· 1열왕 17,10-16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히브 9,24-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르 12,38-4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51] 주여 임하소서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458] 주의 말씀 듣고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38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41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43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In the course of his teaching Jesus said to the crowds,
"Beware of the scribes, who like to go around in long robes
and accept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seats of honor in synagogues,
and places of honor at banquets.
They devour the houses of widows and, as a pretext
recite lengthy prayers.
They will receive a very severe condemnation."

He sat down opposite the treasury
and observed how the crowd put money into the treasury.
Many rich people put in large sums.
A poor widow also came and put in two small coins worth a few cents.
Calling his disciples to himself, he said to them,
"Amen,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 contributors to the treasury.
For they have all contributed from their surplus wealth,
but she, from her poverty, has contributed all she had,
her whole livelihood."

묵상

진심은 통한다고 합니다. 가뭄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죽기 전에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던 사렙타의 한 과부는 엘리야 예언자를 믿었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하루 먹고 살 생활비를 모두 헌금함에 넣는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은 생존 욕구를 갖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살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인간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 생존의 문제라면 도덕 가치나 윤리 규범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도 도덕적으로 남에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윗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뽐내면서 기도하는 위선적 삶입니다. 예수님께 심한 질책을 받는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결코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선뜻 부정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봉헌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비움으로 하늘 나라의 문을 여시고, 죄와 죽음을 이겨 내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희망을 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를 봅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은 시편 저자의 기도가 현실이 될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갇힌 이를 풀어 주시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복음과 성화

가난한 과부의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 프랑수아 조제프 나베作

19세기 벨기에 화가 프랑수아 조제프 나베(Francois-Joseph Navez, 1787-1869)는 브뤼셀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고, 1812년에 겐트 살롱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후 보조금을 받고 파리로 건너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 1748-1825) 밑에서 그림을 배웠고,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1780-1867)의 작품에 큰 감명을 받아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감성을 결합하여 역사화를 그렸으며, 후에 브뤼셀 미술학교의 교장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가 1840년에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마르코 복음 12장 41-44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마르 12,41-44)

성전 계단을 배경으로 예수님과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성전에서는 사제에 의해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쪽에 있는 의자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제자들과 두건에 성직패를 두른 율법학자를 돌아보고 있다. 그분은 손가락으로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과부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질문하고 계신다. 그녀는 흰옷을 입은 아이를 안고 수심에 찬 얼굴로 헌금을 하고 있다.

그녀는 렙톤 두 닢을 봉헌하지만 그것은 생활비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과부의 팔에 안긴 아이는 눈부시게 빛나는 흰 옷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관람자들을 응시하고 있다. 그 아이의 응시는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는 것과 궁핍한 가운데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 중에서 누가 헌금함에 돈을 더 많이 넣었는가?" 하는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질문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다른 아이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계단 아래로 인도하려 한다. 그는 어머니가 봉헌하는 돈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부의 맞은편에 있는 부자는 여러 동전 중에서 하나를 골라 헌금함에 넣으려고 한다. 그 부자 앞에 있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들은 헌금함 앞에서 구걸하는 눈먼 여인과 병든 아이의 도움 요청에 동전 한 개를 건네주며 급히 등을 돌리고 있다. 부자 뒤에 시녀들 사이에 있는 빨간 두건을 쓴 부유한 여인도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과 헌금함에 봉헌하는 것과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 의자에 기대어 서서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과연 누가 올바른 봉헌을 한 사람인가?" 제자들 중 맨 뒤에 서 있는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턱에 괴고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있다.

"하늘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참 부자인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돈일지도 모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손용환 신부의 그림 성서 박물관)

복음 묵상

과부의 헌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손하게 건넬 때, 두손으로 전하는 이유는
아마도...
'나는 이것을 남김없이 당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는 따로 챙겨놓을 손은 없답니다'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임의준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하느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요 일반알현에 앞서 바오로 6세 홀에 딸린 접견실에서 미국성서협회(ABS) 대표단에게 인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월 31일 수요일 바티칸에서 미국성서협회(ABS) 회원들에게 인사하면서, 이 협회의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느님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소임을 추구하는 한편 그 사명을 강화해나가라고 격려했다.

이어 교황은 **"하느님의 말씀은 참으로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을 인용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다"**고 말했다(히브 4,12 참조). 교황은 "다른 어떤 책도 이와 동일한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감을 주시는 성령을 인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쌍날칼

교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위로가 되는 주님의 달콤함을 주지만 우리 마음에 불안을 안겨주는 칼이기도 합니다. 그 칼은 깊은 곳을 꿰찌르고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져옵니다. 꿰찔림으로써 (우리 영혼은) 정화가 됩니다." 교황은 "이 '칼'의 양날이 처음에는 상처를 주지만 유익한 것으로 드러난다"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베어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고 지적했다. "생명의 말씀은 또한 진리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창조'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거짓과 이중성을 소멸시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하느님께 향하도록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어 교황은 우리 각자가 "구원하시는 말씀의 살아있는 반영, 예수님의 증거자, 그분의 새로움을 선포하는 '열린 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읽혀지게' 하자"고 말했다.

<번역 김근영 / https://www.vaticannews.va/ >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본당 신자들이 드리는 합동 위령 미사(2018년 11월 3일)

위령 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1, 2018

Gospel Mark 12:38-44 *(See the page 2)*

Giving to God

〈오 마리아 수녀의 주일복음그림 / 바오로딸 콘텐츠〉

In today's first reading we hear about a widow who was asked to give away all the food she had. In the Gospel Jesus points out a woman who put all he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It pleases God when He sees us sharing what we have with the poor and the Church. But do you think He wants us to give everything away?

Everything we have comes from God and He wants us to use it well. That's called being a good steward. It means using what we need for ourselves, but making sure that we always give to the Church and those in need.

What would a bad steward do? How can you be a good steward with your money? 〈www.thekidsbulletin.com〉

Elijah and the Poor Widow

(1 kings 17 : 10-16)

How well do you know the story of Elijah and the widow? Which of these are true and which are false?

1.Elijah met a widow collecting sticks and asked her for a cup of water. **True or False?**

2. The woman did not want to get the water for Elijah. **True or False?**

3. The Woman had a lot of food stored up. **True or False?**

4. Elijah told the woman to bake a little cake for him. **True or False?**

5. The woman was afraid that she would run out of flour and oil. **True or False?**

6. Elijah told the widow that God would not let the flour or oil get used up. **True or False?**

7. The widow ran out of food and could not feed her son. **True or False?**

ANNOUNCEMENT

1 **Winter Coat Drive to support the Christ House (thru December 2, 2018)**

- **Donation Items :** Gently used or new winter coat, new hats, scarves, and gloves for adults
- **Donation Boxes** are located at the lobby in the **Hasang Building**

2 **Jr. High**(6th-8th grades) **Thanksgiving Potluck**

- **When** : Sat., Nov. 17th, **6:30pm-9pm**
- **Where** : Parish Hall

3 **Formation in Christian Chastity (Make Up Class)**

- **Sun., Nov. 18th** (during the class hour)

4 **No Sunday School on Nov. 25th (Thanksgiving Break)**

5 **2018-2019 First Holy Communion Class**

- Starting on **Wednesday, November 28th**
- **Class Hours :** 7:40pm-9:00pm
- **Where** : Hasang Building (Room #106)
- **Parents Orientation** : Nov. 28th, 8pm at Room #110

Fill in the blanks (Nov.4, 2018) Answer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제5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변화, 성장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아버지"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성요셉 아버지학교(지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가 지난 11 월 3일(토)부터 4일(일) 까지 삼위일체 피정 센터(Trinitarians Retreat Center)에서 열렸다. 동중부 신자를 대상으로 열린 제5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는 봉사자를 포함하여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의 전례를 시작으로 강의와 주제 발표, 그룹 나누기, 요가 체조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성 요셉 아버지학교는 '승자는 위대하고 패자는 무능한' 무한경쟁 논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녀에게 마음을 열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이번 아버지 학교는 특별히 80% 이상의 참석자들이 3-40대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젊은 1.5세대 아빠들은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아온 삶을 잠시 멈추어서서 자신을 뒤돌아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는 말씀의 전례에서 "제5기 아버지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느님 부르심의 '은총' 이기에 '여러분을' 축하드린다" 고 말했다. 또 "아버지는 그저 자연히 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와 유대감을 갖고 서로 잘 소통하고 알게 될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에 이번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중한 체험을 하기를 바란다" 고 격려했다.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서울 대교구)는 '용서와 화해' 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하는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진정한 고백성사를 위해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순수한 나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고, 합리화하지 말고, 방어기제를 제거해야 한다" 며 "주어, 목적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성찰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 감사 축제 파견미사에서 백인현 신부는 "1박 2일의 시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은총의 시간, 소중한 체험의 시간과 감동의 시간이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 고 강조하고 "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을 세운다' 라는 구호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항상 새기며 하느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달라" 고 당부했다.

소감 발표에서 이경태(47) 요셉은 "아버지가 된 지 15년이 되도록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잠깐 멈추어 섭시다!' 라는 강의를 통해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였음을 깨달았다" 며, "앞으로는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고백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세를 배우고 신앙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배운 아버지들은 가족과 함께 파견성가의 마지막 구절을 힘차게 부르며 성전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갔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찌라!"

▲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 아버지들

▲ 아내의 발을 씻기는 아버지들

▲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축제 파견미사

1 단체장 회의
- 일시 : 11월 11일(일) 오전 11:30(B-1,2)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1월 11일(일) 오후 1시(B-3,4)

3 복사단 모임
- 일시 : 11월 11일(일) 오후 12:40(B-1,2)

4 주일학교 교사회의
- 일시 : 11월 11일(일) 오후 1시(교무실)

5 대학교 방문 미사
- Virginia Tech
  일시 : 11월 15일(목) 오후 5시
  장소 : Derring Hall Rm #3083
- UVA
  일시 : 11월 16일(금) 오후 5시
- 문의 : 한승진 아녜스 (703)470-2171

6 사도회 임원회의
- 일시 : 11월 16일(금) 오후 8시(B-1,2)

7 중등부·고등부 Thanksgiving Potluck Dinner
- 일시 : 11월 17일(토) 오후 6시(친교실)

8 하상회
- 일시 : 11월 18일(일) 오전 11:30(B-3,4)

9 안나회
- 일시 : 11월 18일(일) 오전 11:30(A-1,2,3,4)

10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1월 18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11 베드로회
- 일시 : 11월 18일(일) 오후 1시(B-1,2)

12 바오로회
- 일시 : 11월 18일(일) 오후 1시(B-3,4)

13 2018년 꾸르실료 동중부 울뜨레아
- 일시 : 11월 18일(일) 오후 2시(성당, 친교실)
- 동중부 울뜨레아를 개최하오니 꾸르실리스따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14 하상 성인학교 서양화반 작품 전시회
- 일시 : 11월 18일(일) 오전 11시 - 오후 1시(친교실)
- 하상 성인학교 서양화반(강사 김이레네)에서 가을학기 동안의 작품들을 선 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 율리아나 교장(703)217-2775

15 하상 성인학교 휴강
-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주간 동안 휴강합니다.
- 휴강일 : 11월 20일(화), 11월 23일(금)

16 2018-2019년도 첫 영성체반 신청
- 대상 : 3학년 이상
- 신청 : 11월 18일까지, 매 주일 오전 9:30-오후 1:30
- 신청 장소 : 하상관 로비
- 첫 수업 : 11월 28일(수) 오후 7:40-9시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11월 28일(수) 오후 8시
- 문의 : 윤정 보일 (703)371-3589

17 2018년 성령 기도회 "은혜의 밤"
-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1월 14일(수) 오후 7시-오후 10시
- 강사 : 백운택 아오스딩 신부(동북부 성령 봉사회)
- 문의 :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18 제14차 동중부 기초 성령세미나
- 성령 안에서 기쁨의 새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1월 23일(금) 오전 9시-오후 9시
  11월 24일(토) 오전 9시-오후 7시
- 장소 : 볼티모어 성당 기도 회의실
- 회비 : $40(호텔숙박 및 식사비 포함), 선착순 40명
- 문의 :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동중부 성령 봉사회 (443)520-4420

19 교육부 신심 세미나
- 일시 : 11월 25일(일) 오전 11:30(A-1,2)
- 열정적인 가톨릭 신자로 거듭남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 제목 : 열정적인 가톨릭 신자의 4가지 싸인(Sign)
  -기도, 배움, 선행, 선교(매튜 켈리의 저서를 중심으로)
- 강사 :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 (571)275-0691

20 2019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 데레사 (703)346-6067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1월 11일(일)	연중 제32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교무실),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12일(월)	성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사무실 휴무
13일(화)	성녀 프란체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동정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하상관)
14일(수)	연중 제32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15일(목)	연중 제32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6일(금)	연중 제32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성당), 사도 임원회의 (오후 8시, B-1,2)
17일(토)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중등부·고등부 Potluck(오후 6시, 친교실), KofC 모임(오후 7시, B-3,4)
11월 18일(일)	연중 제33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베드로회(오후 1시, B-1,2),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바오로회(오후 1시, B-3,4), 꾸르실료 동중부 울뜨레아(오후 2시, 성당/친교실), 하상 성인학교 미술작품 전시회(친교실)

2차 헌금(11월 10, 11일)

이번 주일은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2주간 : 유딧 9-16, 사도 24-25**

KACM TV 하이라이트

11월 15일(목) 오후 5:00-6:00
11월 16일(금) 오후 8:00-9:00
11월 18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특집 :** 성 정 바오로 본당 승격 22주년 기념 음악회 (예정됐던 음악회 특집을 방송국 사정으로 이번 주로 옮겨 방영한다)

추계 대청소

구역부 주관 추계 대청소가 11월 18일에 실시됩니다. 다음은 구역별 담당 장소입니다.

- **알렉산드리아 & 훼어팩스 1**: 교실 A-1,2,3,4
- **애난데일 & 라우든**: 교실 B-1,2,3,4
- **우드브리지**: 현관, 화장실
- **비엔나**: 본당(1,2층), 유아실
- **훼어팩스 2**: 본당 건물(청소및 낙엽제거)
- **훼어팩스 3 & 버크**: 사제관, 나눔터(청소및 낙엽제거)
- **알링턴·폴스 & 프린스윌리암**: 친교실 홀, 바닥, 유리청소
- **스프링필드**: 주임·보좌 신부님 방, 복도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톤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1월 4일(연중 제31주일)

주일헌금	$ 9,292.00
교무금	$ 12,55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4,500.00
특별헌금	$ 1,220.00
2차헌금	$ 0.00
합계	**$ 27,56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종(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또)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경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미카엘) 703-881-115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예삐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